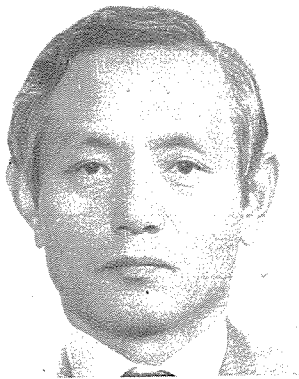


# 우리 과학기술인은



白 英 鶴

〈한국전기통신연구소장〉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선진국 대열에 보다 빨리 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와 취급량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과거속의 과학·기술인에 관한 내용은 고작 외국의 예들이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정치가, 시인, 미술가 등에 대한 화제는 너무나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비록 과거에는 하부계급의 사람들만이 과학·기술을 했었고, 그래서 역사속에 별로 등장할 기회를 못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관한 화제가 이렇게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사는 우리 과학·기술인이 앞장서서 역사속의 옛날 과학·기술인이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옛것을 찾아내고, 보존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정치가나 문학가 못지않게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었음을 모두가 알도록 해야할 것이다.

과학·기술인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 사회의 숨은 일군으로서 묵묵히 그 사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사람

# 現在와 未來를 이끄는 역군

들이다. 그들은 항상 질서나 범규를 잘 지키는 착한 소시민이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나 공리가 안 지켜지거나 무너지는 경우에도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논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통례 이므로, 그런 접근방법에 익숙된 과학·기술인이 통상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 이리라.

이것은 이제부터 미래를 살아갈 과학·기술인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될 수 있는 생각 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 과학·기술인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가장 믿음만한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옛 선배들이 해온 것처럼 묵묵히, 그러나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옛 선배들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최초의 품질을 갖도록 밤낮없이 기량을 다듬고 닦았었다는 얘기를 흔히 들어 알고 있다.

현대에 사는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이점에서는 다를바 없다고 본다. 즉 자기가 하는 일속에 파묻혀 그 일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나 주위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깊이 있게 노력하는 자세는 과학·기술인이 다른 어느 직업인보다도 더 철저히 갖는다고 해서 지나칠리는 없을 것

이다.

스스로 일속에 팔을 걷어부치고 들어가지 않고 주위만 맴돌면서 어떤 조건이 부족하다느니, 입으로만 이렇게 함이 옳다느니, 해보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성립되기 전 계획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갖추어져야 할 것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 일의 성패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필요하지만, 한번 그 계획이 확정되어 실행단계에 들어서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성공으로 이끌도록 추진해 나가는 저돌적인 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상부상조에 의한 스스로의 지위향상에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주장하고 싶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우리 과학·기술인은 맡은바 직무에는 맹목적이라고 할만큼 정직하고 충실했었지만, 그로 인하여 스스로의 지위향상에 조직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과학·기술의 중요함이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노력하여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보다 훌륭한 역사를 창조해가는 데에 주역을 맡음으로써, 타분야에 관한 기여는 물론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지위향상에도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